



攝  
信  
慈  
愛  
世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 東友會報

1985年 9月 30日 第105號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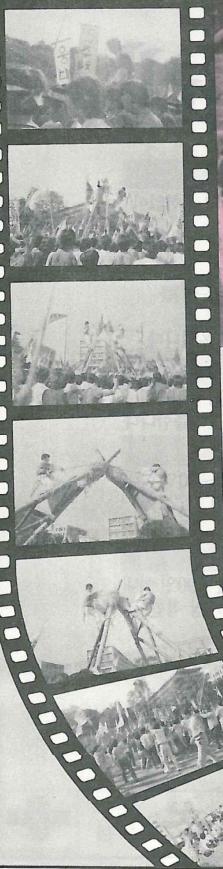
|     |     |     |
|-----|-----|-----|
| 발행인 | 鄭申鄭 | 在益九 |
| 편집인 | 申興來 | 哲炫鎬 |

편집부장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 필동 3가 26  
전화: (직) 267-8568 · 274-7449  
(교) 267-8131~9(465)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 지축을 뒤흔든 “우와와 우와와” “東岳, 젊음의 聖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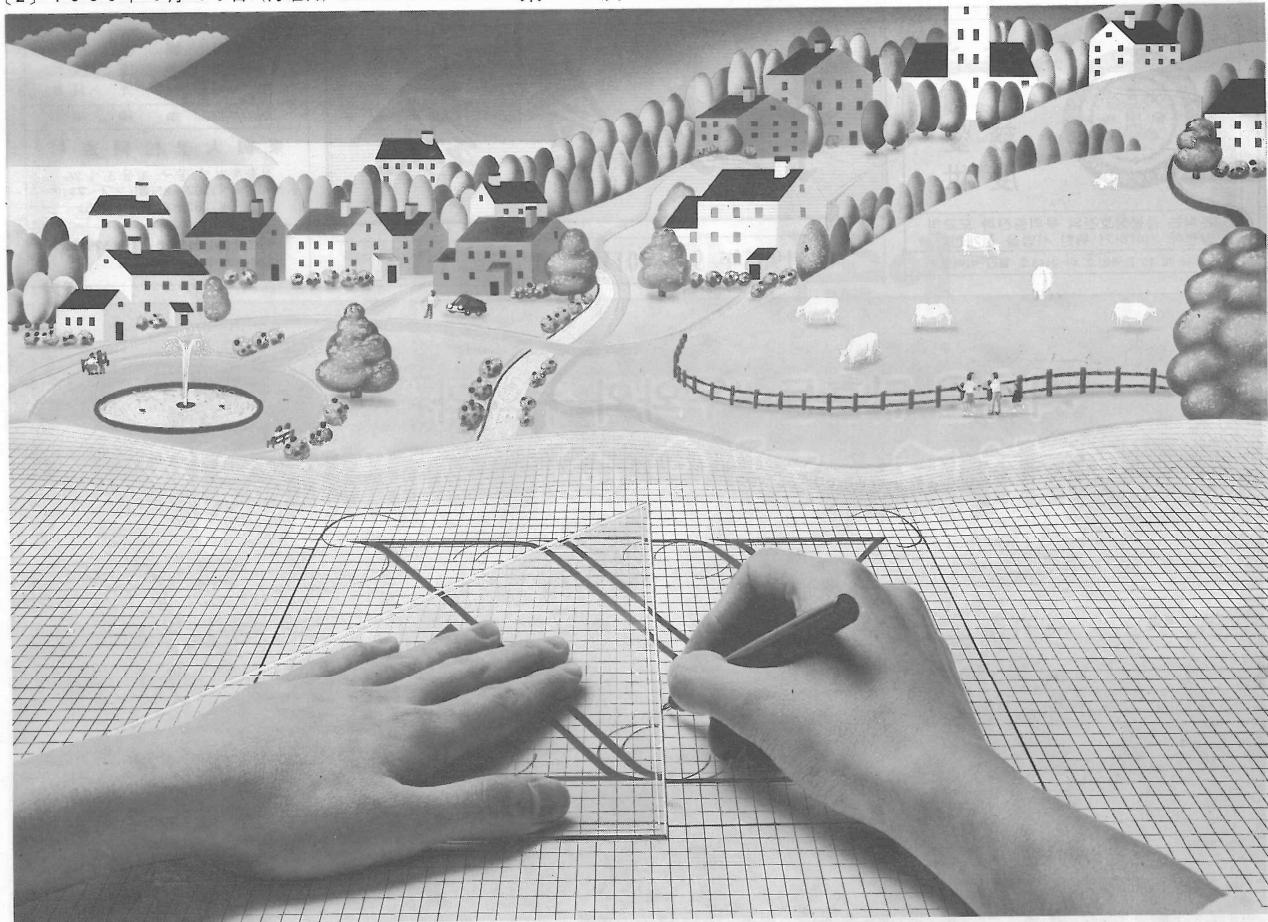
### 동국은 언제나 활화산이다.

풍요를 수확하는 이 계절은 그것이 땀의 결정이므로 더없는  
기쁨이며, 풍요를 만끽하는 놀이 한마당은 내일을 향하는 한마  
음으로 맺어지기에 그 멋이 그지없다.

화보는 9월 26일 모교에서 열린 백성민속체전 중 獻山쇠며  
리대기 광경. 연면히 이어온 동국인의 기상이 높푸른 가을하늘  
에 드높았다. (관련기사 9면)

치솟은 동국의 旗幟, 한마음 한뜻으로 어우러진 동국인의 圓  
舞. 「거례를 위해 인류를 위해」 묵묵히 걷는 白象의 걸음은 걸  
코 더디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언제나 동국은 활화산이다.



## 확실한 투자 행복한 미래

시중에는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마는 막상 목돈이 생기게 되면 어디에 맡길것인가 하고 망설이는 분이 아직도 의외로 많습니다.

10여년을 고객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온 저희 대한투자금융은 일시적인 여유자금에 대하여 단기간이라도 높은 수익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언제라도 전화로 문의해 주시거나 직접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 어음관리구좌 CMA

최저잔고 : 400만원 이상을 계속 유지하시면 금액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 기 간 : 180일 이내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사장 편리합니다.
- 수 익 율 :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율에 따라 변동 금리를 적용합니다.

\*'85년 4월 30일 현재 평균복합수익율은 연 13.87%입니다.

### 신종기업어음 CP

- 투자금액 : 1,000만원 이상
- 기 간 : 60 ~ 180일
- 수 익 율 : 최고연 13.77%
- 금융기관보증 CP도 매출합니다.

### 기업어음

- 투자금액 : 100만원 이상
- 기 간 : 1~90일 이내
- 종 류 : 담보 무담보
- 수익율 : 연 11.22%
- 중도해약이 가능합니다.

### 발행어음

- 투자금액 : 200만원 이상
- 기 간 : 1~90일 이내
- 중도해약이 가능합니다.
- 일시여유자금 운용에 가장 적합합니다.



**대한투자금융**  
DAI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동 12154(명동 구 예술극장)  
대표전화 : 771-06, 투자상담실 : 771-4491

代表理事  
社長 李鍾萬 (52·經濟)

# 國內外 회원 명단·근황·재파악

## 이미 공문발송 유대강화·모교지원 확대위해

◎ 모교 80주년을 앞두고 최근 들어 각 단위 東友會가 새로이 창립된 ◎  
◎ 그러나 일원진 개선 및 신임회원 영입등의 조직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 ◎  
◎ 다. 국내외를 망라한 이외같은 움직임은 民族私學으로서 걸어온 80년의 ◎  
◎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六萬 동국인의 대동단결이라는 점에 더욱 뜻이 ◎  
◎ 깊다.

## 내년 80주년사업 위한 시금석

이에 부응하여 本會에서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지원사업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각 단위 東友會의 회원 및 일원진 명단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단위 東友會에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漢醫學科大 구동분회(회장=李主文) 이 國史學科동창회(회장=田萬成) 등이 새로 결성되었고, 기왕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온 지역·직장·학과별 동우회가 조직강화와 사업확대에 진력하고 있으며 해외부에서도 이에 뜻지 않는 결속을 다지고 있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각단위 東友會의 회원 및 일원진 명단을 최근 활동상을 파악하여 모교 80주년을 즈음하여 더욱 유기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한 시금석을 마련하고, 정확한 東國人名錄의補正과 東友會報의 확

대 배포를 위한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교류부는 접수처 못해거나 아직 회원파악이 안된 동우회에서는 조직화·본부화 사무국으로 연락을 하여 단위 소속악과 본부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

## 뉴욕지부 모교에 도서기증

### 1,2차 4천권...萬卷 예정

미국뉴욕지부(회장=임세창·59 명운)가 모교후배들을 위해 활발한募書운동을 벌여지금까지 1만여권의 도서를 모아놓았으나, 동지부는 금년 7월초순 1차로 1천여권의 도서를 모교에

## 계산 고시학사에 本會 세탁기기증

本會는 지난 9월 5일 桂山고시학사에 세탁기 1대를 기증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申益炫 본부회장은 『면학에 정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보람이 되어주실 바다』는 통장의 의뜻을 아울러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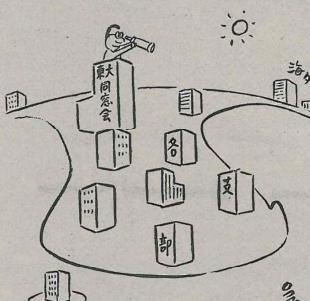


## 『모교강당서 학생부부 2 쌍 탄생』

전통민속의 보존·전수를 위해 모교 「야간강좌여행학회」가 주최 6일 모교 중강당에서 있었던 「전통훈례식」 광경. 원래 계획에는 없었으나 행사준비중 전통훈례재현 경기에서 전통훈례가 되어 결사결시해 모교재학생권회안(경영 1)·김활(불교 4) 군의 2 쌍이 실제결혼. 하기전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식순에서는 신랑·신부가 입장을 끝으로 신랑이 기려운 장인 어른께 드리는 예식의 전안(신랑 2번집)를 한 후 신부가 입장, 신랑신부가 초례청에서 서로 절을 주고받는 예식인 교례를 한뒤 혼례가 이루어진 것을 알리는 근배례로이 어찌 신랑·신부가 표주박에 솔을따라 마실으로써 예식을 모두 마쳤다. 예식후에는 신부를 가마에 태우고 본관불상앞을 돌기도.

## 東友漫評

鄭雲耕



本會는 支會로, 支會는 本會로

## 東進會·救農會 정기총회

### 새회장에 李仁植·劉鍾熙 동문

#### 農研30주 행사등록의

慶東友會(회장=金眞植)는 救農會(회장=柳相昌)는 제24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경향각지에서 40여명의 회원이 모여 이번 총회에서는 새 회장을으로 韓鍾熙(65농경) 동문을 선출하는 등 새임원진을 결심했으며 10월중 동문기록체 모 대회를 열것과 내년에 있을 동어총연구회 창립30주년 기념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토의했다.

▲회장=劉鍾熙(65농경)

#### ▲부회장=최수용(67경제)·

전하철(69농경)

▲감사=권오갑(65농경)

▲총무=李澤魯(70농경)

#### 교도와 유대강화키로

東進會(회장=奉泰教·모교교

東進會(회장=8월 31일 오

후 3시 우이동 유통장에서 定

期總會를 열고 제 9 대회장에 李

仁植(61 법학·남부소방서장)

동문, 총무에 金永喜(63법학·

본회 이사) 동문을 선출하는 등

임원선출 및 우의증진의 모임을

가졌다.

보내온데이어 2차로 도서 3천여권을 발송, 10월 10일 현재 서울세판에서 통관절차를 밟고 있다.

뉴욕지부는 나머지 6천여권의 도서도 내년까지 기증할 예정인데 현재 통관절차중인 도서는 저널과학, 사회과학등의 원서(英書)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募書운동에 협찬한 동문들을 보면 김영남·김주원·장세철·이근우·그레이스·강정삼·한국인·김인기·김영자·임세창·장진건·윤호현·김재남·송희종·최종락·김채수·강서종·정휘연·구영범·장해숙·배시영·신진기·동문이며 「일작사」도 참여했다.

## 東綠會, 崔炯佑동문 등 영입

### 12월 22일 「송년의 밤」 갖기로

10월 모임은 9일

東綠會(회장=柳相昌·임광토·전회장) 제123차 월례경기가 9월 11일 12시 30분 한성컨트리클럽에서 2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번 월례회에는 그간 참석치 못했던 姜化煥(59경제) 회원과 鄭相永(61법학·株 금강·고려회회회장) 회원을 반갑게 맞이하고 명진·개업반 회원들을 축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경기의 우승은 최고령원로인 李東益(전교도교總長) 회원이 차지했다.

10월 월례회는 10월 9일 12시 관악컨트리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회동은 9월 28일 오후 8시 플리자호텔 덕수궁에서 崔載九(69영예회장·鄭在哲회장)과 「東綠會 송년의 밤」 행사를 12월 22일에 개최키로 확정하고 관악(60정지·위기협여행사대표회 이사) 동문을 선출하는 등 임원선출 및 우의증진의 모임을 가졌다.

부총동문 4명의 신임회원을 맞아들였다.

## 『모교재학생들은 同憲會를 어떻게 생각하나?』

### 『선배·후배는 태양과 쌍』 비유

모교 재학생 후배들은 東大新聞 동창회 기획좌담회 同憲會와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모교 東大新聞은 지난 10월 1일 「東國80년 길목에서」라는 기획특집 시리즈에서 「동창회활동」을 주제로 미루고 재학생·대학원생 등을 통해 동창회와 모교 그리고 재학생과의 새로운 관계정립 방향을 모색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후배들은 동창회가 좀 더 적극성을 띠어 건전한 의미에서의 학교비판서식으로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동창회관」의 有無여부도 후배들이 「직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데 고민 억울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후배들은 더많은 장학금·기증 도서·더좋은 면학환경등을 위해 선배들을 노력해줄것을 가장 바라고 있으며 모교의 위치에 떨어진데 대해 「교세복복」을 위해서 단 한번만이라도 선후배가 완벽한 단결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후배들은 흥미롭고 서배들을 존경하고 있었으며 선배는 태양·바람·물같은 존재이고 후배들은 씨이어서 선배들이 후배들에 자랄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후배들은 자신에게 열매를 맺어 보답하는 「동창회는 자연 같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0人人>

- ◎ 지난 9월20~23일 3박 4일동안 분단40년의 장벽을 넘어 平壤방문단의 이산가족고향방문단 원으로 平壤을 다녀온 소나희(68세)·洙大우(68세) 총무이사·본회이사) 동문을 만나 북한 체류기 간증 느낀점들을 들어본다. <편집자註>

## 全炳喜 동문 평양 방문談

임자일은 선물....

『제 고향은 경북 청주군 정주읍 352번지이고, 이번에 삼촌(50세)과 두 이모(64, 68세)를 상봉하기 위해 평양에 있었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지요』

분단 40년의 장벽을 허물고 한껏 힘 이산가족의 재회를 이



□북한에서 온 예술단의 공연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30년전의 수준이었다고 혀를찼다.

<손복출>광경

루기 위해 상호방문에 된 남북고향방문단의 단원으로 平壤을 다녀온 全炳喜동문。그의 목소리엔 채 가지지 않은 아쉬움이 그득하다. 1·4후퇴 때 5살의 어린 나이로 가족과 함께 월남한 전동문은 점점 하나씩 거리여행을 할수 없는 노모(78세)를 대신하여 이번에 평양을 갖다 것이다.

『설혹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외조부의 기일이라도 알아보려』 했으나 그들의 비협조로 아무 소식도 전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삼촌이 어서 병을 앓아 머리에 품을 든 자국이 있다는 것과 어머님 사진을 비롯해서 여러 가족들의 사진을 준비했었죠. 그리고 만나면 주려고 선물도 가져 갖았구요』

가족회의를 거쳐 북한에서 요금하게 쓰이고 부과가 적은 것으로 시체·카메라·스웨터·화장품·금반지, 하다못해 라이다·스카프에 이르기까지 온식구가

동문 근황에 합구  
—서울에는 玄勝鐘 한립대 교수와 북한족 예술공연단의 白仁(後)단장이 평양고보 26회 동창으로 51년만에 만났고, 宋基澈변호사 등 6명과 孫成翰北赤 위원장이 앙정중학 29회 동창들로 45년만에 회동하여 즉석 동창회를 가졌는데, 혹시 평양에 있는 동문들을 만날 기회는 있는지요?

『가기 전에 동문들로부터 얘기는 듣고 갖았습니다  
북한이 고향이거나 남북되어 북한에 있을지도 도를 동문들

들의 사회구조가 「사상선」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점만 해도 북한의 실정은 짐작이 되고도 남으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동창회들의 모임들은 산산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 심정에서도 그네들의 「전시용」 건물들은 격에 맞지 않게 호화스러운 모순이죠』 소위 평양의 전시용 건물들은 투자 가치나 효율성·경제성을 보면 투자 가치나 효율성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분담해서 선물을 준비했었으나 돌아온 뒤에 북측 안내원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마지막날 평양에서 개성으로 오는 차속에서 「기차상봉」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최후의 기대마저도 수포가 되었을 때 심정이 작착히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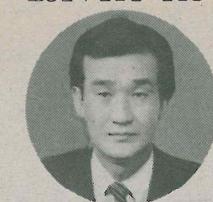
—평양을 가기 됐을 때의 심정과 그곳에서 받은 인상은 어떠했는지요.

『당장 평양방문을 한다고 생각하니 「혹시나」 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들더군요. 기대나 설레인 듯하지 않았지요. 또 나와서 나를 대로 느낀 인상은 쉽게 표현해서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북한은 폐쇄사회로 비교대상을 찾을수가 없지만 우리의 수

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힘은썼습니다만 전연 알수가 없더군요』

全동분이 출업한 선린상고나



모교 동문을 소식을 묻는 말에 안내원은 일체 합구하더라

는 것입니다. 더우기 일정도 그

들의 선전효과에만 중점을 두

△東亞日報 9월22일자에『東國大를 다행였다』고 보도된 흥연구(58세)가 서울을 떠나는 모습. 본회기록에도『洪淵久·40回교 본적경복』으로 나와있다.

편안에 머물면서 고래호텔이나 유동관 등에서 접한 안내원과 접대원들의 얼굴이나 차림에서 느낀점은『南男北女는 옛말이 이제는 南男南女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제는 南男南女

여성들이 화장을 한 모습은

혈이 되어 있다는점  
요즘 평양에서 유출되는 말은 모여나는 절점에 모두들이 「퉁이크다」라고 모아 에기한는데, 사실 김정일은 우상화에 갖는 애를 쓰며 별여놓은 무모한 전시품들을 친양하는 말이라고. 있다.

『그리고 그 「퉁이크다」는 것도 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호텔의 경우를 보면 일어나니깐 그게 그들이 22층에 22개의 아메리카이터가 있는데 44층이라 고려호텔에 엘리베이터가 80개로 빙그레이고 고급화된 객실이 많지 않은 모양지요』

동문들에게 좀더 살갑았던 소식을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란다는 그들의 낙후한 생활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허하게 사용하고 있는 밀크辈이 찾을 수 있고 모두 나일론 계통의 천으로 된 베개타이를 매고 있고, 호텔의 비누라는 것도 우리 빨래비누 수준이더군요.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앞면의 진실을 드러내고 싶은 텔레비전의 윗면엔 「상봉포기」라고 적겨있지만 그게 깔끔하게 살펴보면 평양의 특수한 특징이 있다. 그에 보면 접두어인 「상봉포기」는 특수한 특징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에 보면 접두어인 「상봉포기」는 특수한 특징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북한 사람을 보면 한편

한 생각이 기기도 한다. 한편

이상의 아름다움이 사라져 갈

다면 그때에 보교 평양은 분교로

서우고 동창회도 민족에 활동에 대한 가치를 잃지 않았는지

나니며 더욱 가치를 찾은 것이다.

에도 환하게 웃는다.

## “내고향은 평북정주읍 352번지....”

「외조부기일이라도 알아보려」 결심... 아무도 못 믿나

## 남북동문 소식 문자 "묵묵부답,"

준율 기준으로 본다면, 처음으로 「기자 막히다」는 느낌이 드고, 무언제 토는 「안심하니」 시간이 흘러수록 부자유하고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두렵고, 하루빨리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었습니다.

하루에 약 3시간 정도의 수

면으로 보낸 평양에서의 3박 4일은 「설마」 했던 일같의 기

대조차 무너져버린 암흑과 같

은 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었고 일체 바깥출입도 통제가 된데다가 폐쇄된 사회인 까닭에 북측의 계획외의 민첩은 용납될 수가 없었다고 전한다.

『우리는 갖고 있는 동문의식을 북한에선 전혀 느낄수없었고 전한다.

평양만 하더라도 원고작사람들은 드물고 80%이상이 합경

도 출신인데 이런 현상은 그

옛날의 「구리도」 같은 걸 덕지 덕지 바르고 있는것 같았고, 안내원의 손톱세에 배기 깐 모습이라든지 그들의 낙후한 생활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허하게 사용하고 있는 밀크辈이 찾을 수 있고 모두 나일론 계통의 천으로 된 베개타이를 매고 있고, 호텔의 비누라는 것도 우

리의 빨래비누 수준이더군요.

“傳統과 未來를 세계로 잇는 종로애브뉴”

분양회원 모집 734-0051-5

- 상권의 중심지로서 최대의 입지조건
- 합리적인 주차시설로 최대의 편의
- 고유기능의 여섯 공간과 최고의 기능
- 작은 피해까지도 보상해 드리는 보험에 가입

|                   |
|-------------------|
| F 12 ~ 13 오피스텔    |
| F 5 ~ 11 오피스      |
| F 3 ~ 4 미술공간·공연공간 |
| F 1 ~ 2 은행공간      |
| B 1 전통문화공간·면세점공간  |
| B 2 ~ 4 주차공간      |

成和ビル딩

大京産業株式會社  
成和實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18

대표이사 崔 積 植 (경院 1期)

감사 李 知 映 (68商科·경院 1期)





▲梁世烈(69경제)=한국증권 거래소 조사부 차장에서 조사부 부장으로 영진。

▲鄭在雄(71경영)=국민은행 기업고객부 과장에서 본점 영업부 차장으로。

▲曹台根(71경제)=중소기업 은행 중앙지점 차장에서 본점 조달과 과장으로。

▲張聖來(72경제)=태평양화학(주) 경리과장에서 종합조정실 과장으로。

▲陳光男(72경제)=서울지법 보부지원 계장에서 서울민사지법 민사신청 1과로。

▲許烈(72경제)=주택은행 전산실과장에서 기금관리과장으로。

▲金載範(73경제)=국민은행 성동지점차장에서 동아상호신용금고(주) 기획실실장으로 영전。

▲朴尚仁(73경제)=한국투자신탁(주) 기획과장에서 국제업무실 조사역으로。

▲李慶夏(73경제)=동국화공(주) 출판부 차장에서 동국실업(주) 출판부 차장으로 영전。

▲趙時勝(73경제)=반도상사(주) 심사부에서 럭키금성(주) 마그네릭판매과로。

▲許韓旭(74경제)=제일은행 저축부 대리에서 납지점 대리로。

▲康泰俊(82행운)=국방부특검단 감사관에서 종부처 비상계획국장으로 영전。

▲林洛允(76행정)=대구세무소 소득세과장에서 정무관실 사무관으로。

## 出入國

▲金長好(48문화·교수)=동문=1년간의 東京大學 구활동을 마치고 최근 귀국, 다시 모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徐京保(51불교·一鵬禪宗會총재)=日本과 美洲지역 포교를 위해 9월23일 출국, 徐동분은 출국 면허 퍼시픽 스테이트 대에서 人間學사학위를 받는다.

▲黃明秀(53정치·민주협간사장)=臺北에서 열리는 세계 黃氏大宗會에 우리나라 黃氏 대표로 참석차 9월30일 출국。

## 移轉·開業

▲한국수출입은행 東友會(회장=洪鍾寬)=사옥의 이전에

따라 9월 9일자로 연락처가 변경됐다. 영등포구 어의도동16-1 전화: (784) 7011, 1021 교수보험 1부。

▲金良灝(72법학·본회이사)=  
=(주) 비전코리아 사무실을 봉동28-4로 이전했다.



## 結婚

▲許東華(57법학·방주신업회장·본회이사)=서울19일 12시 30분 영리교서 장남 화족.

▲許文秀(57경제·상업은행부이사·본회이사)=10월23일 오전 11시 YWCA에서 2녀화족.

▲黃泰元(48문화·태원농원대표이사)=10월 6일 오전11시 영빈예식장에서 3녀 화족.

▲李錦國(57언론·커안본부이사·본회이사)=8월26일 오후 2시 수운회관에서 長女화족.

▲魯柱赫(82농생)=10월 20일 오후 3시 목복예식장에서 화족.

▲白勝好(84국문)=9월 29일 오후 2시 영빈장예식장에서 화족.

▲金雄起(84국문)=10월 6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韓國文人協會가 제37한 제1회尹東柱文學賞 본상수상자로 선정됐다.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윤동주문학상 심사위원은 郭鍾元(위원장)·金良灝·黃眞·孫素姬·趙炳華·吳學榮씨가 맡았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윤동주문학상 심사위원은 郭鍾元(위원장)·金良灝·黃眞·孫素姬·趙炳華·吳學榮씨가 맡았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尹東柱(56·불교)=10월 20일 오후 2시 진주예식장에서 화족.

▲李炯基(56·불교·詩人)=동문이 「불교의 지도」이며 수상작은 10월23일 한국일보



## 백상 민속체전

# 東岳에 어우러진 한마당 잊혀져 가는 민속 일깨워

東國人의 체력증진과 하나님을 과시한 「백상민속체전」이 지난 26일 3천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운동장에서 열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총학생회 부활이후 처음 치뤄진 거교적인 체육행사인 이번 체전은 예년의 경기위주 행사에서 탈피, 고유 민속놀이를 많이 만들어 잊혀져가는 민속을 일깨우는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

### ■체전기념행사

백상민속체전을 기념하는 전야제행사로 24일 오후 3시 학원관 소각단에서 열린 「초청강연회」는 「분단40년」이란 주제의 슬라이드 상영에 이어 이미경(여성평우회대표)씨의 1분단시(여성평우회대표)와 함께 춤을 추었고, 이어 미미경(여성평우회대표)씨의 1분단시(여성평우회대표)와 함께 춤을 추었다.

25일 오후 5시에는 총학생회 주최로 「생명해방제」가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상앞에서 열려 「민중불교운동연합회」 회원이 출연, 범례의식과 마당놀이가 어울려진 한마당으로 승무의 일종인 나비춤, 바라춤 등을 선보였다.

### ■터잡이굿

개회선언에 이어 삼귀의례, 국민의례 등의 순으로 진행된 터잡이굿에 이



어 민족통일 마라톤이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산순환도로를 달리는 코스에서 열려 주연(경영 1) 군과 강주연(물리 2) 양이 각각 남녀부 1위를 차지했다.

축구는 예산전을 거쳐 결승에 오른 법정대팀과 야간강좌팀이 격돌, 후반종료 4분을 남기고 결승골을 터

뜨린 야간강좌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축구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써머리, 웃놀이, 제기처기, 널뛰기, 여자풀씨풀등이 운동장 서현에서 열리기도.

### ■安東 차전놀이

차전놀이는 오후 2시부터 민족해방파(불교대·문화대·이과대·경상대·농과대)와 민족통일파(법정대·공과대·



사범대·야간강좌) 등 두파로 나뉘어 벌어져 10여분만에 민족해방파가 승리했다.

德尙北道 安東지방의 賀土놀이로서 「車전놀이」가 전하는데 일명 「통체싸움」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통체놀이가 벌어진다.

통체놀이를 위해 미리 통체복을

새내 두었다가 정월 4·5일경에 爪官이 정장을 하고 목수를 대동, 산에 이르러 우선 山神에게 고사를 지내고 나루를 베어다 통체를 만든다.

上元날이 되면 市内가 東西로 편을 나누어 통체를 메고 백사장이나 넓은 보리밭으로 나와 대치하고 서로 통체를 들었다 놀았다 하며 기세를 올린후 맞붙어 물타기 대将의 지휘에 따라 전진후퇴를 거듭하며 삼대방 통체를 놀려 땅에 땅도록 승부가 나는 것이다.

### ■靈山소머리 대기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쇠머리 대기는 영산지방의 고유민속놀이를 재현시킨 것으로 5백여명의 양파가 가

근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춤추면서 오른쪽으로 돌고 「강강술래」를 합창하면서 소리에 밤을 맞추어 춤을춘다.

놀이에 변화를 주기위해 문더널기

멍석탈기, 남생이놀이, 퀴잡기놀이, 고

사리수기금을 섞어서 한층 흥을 둔다.

백상 민속체전의 마지막 행사인 강강술래에는 총 3천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강강술래를 마친후 터다집곳(폐회식)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

## 한의대학장 李學仁교수 체육실장 白元俊교수

모교당국은 지난 1일자로 경주캠퍼스 학교체육학장에 李學仁교수를 임명했다.

또한, 신설된 체육실장에 白元俊(체교과교수)前체육관장을 임명했다.

신설된 체육실은 학생처 체육부를 부속기관으로 독립승격시킨 것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특수운동부의 활동등을 통괄하게 된다.

李學仁(학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41년 충남보령 출생 ▲64년 경희대학원과 후 68년 동대학원 졸업 ▲80년 동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81년 모교 한의과 교수 역임.

### 혜화문(중문) 준공

퇴직교수 및 직원 16명의 회사금으로 건립되는 모교의 혜화문(중문) 건설공사가 2개월만에 완공되어 지난 5일 오전 10시 黃承永총장을 비롯, 교직원, 학생과 건설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 레슬링 5체급 석권

모교 레슬링부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문화체육관에서 열렸던 양정모울림피제기념 「제10회 KBS B대전국 아메리슬링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과 개인전 5체급에서 우승하는 개가를 올렸다.

### 가을농촌활동來 4일부터

모교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가을농촌봉사활동」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강원도 횡성군 정글리 일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 형사모의 재판 부활

「제12회 형사모의재판」이 모교 법학회주최로 지난 24일 오후 3시부터 1천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모의재판은 21년만에 부활된 것으로 서울지역 종합대학교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 제1회 東岳祭 야간강좌

모교의 야간강좌학생회가 주최하는 「제1회 東岳祭」이 오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대운동장과 체육관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는 5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통무속 출연공연, 전통문화제, 각종 전시회, 강연회등 민속행사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특히 6일 「전통훈례식」에는 김황(불교 4) 군과 권희환(경영 1) 군등이 실제 훈례식을 올리게된다.

## 회갑·진갑의 전당, 효도의 전당, 미각의 전당

### 한식 요리 전문 각종 연회석 완비

(500인실, 300인실, 100인실, 2~30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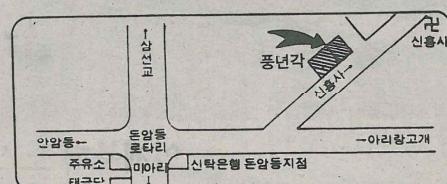
### 豐年閣

서울·돈암동(신홍사앞)

922-1188 ~ 9

전화 923-1188

대표 金光鎬 (69·경행)



## "東友會報 案 키워주세요"

廣告病 낫는 약은?

…본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東友會報가 지면 100호 부터 화보와 함께 12면으로 증면, 명실공히 앞서가는 회보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고 더욱이 104호부터는 월선편제로 바꾸어 더욱 선명하고 깨끗한 회보를 동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뒤안길에는 숨은 공모자가 있다는 것.

저렴한 가격으로 화보를 인쇄해주고 있는 東明印刷(주) 대표인禹昌昱(67·농학) 동문이 그 주인공.

이러한 보이지 않는 따스한 손길들이 달아 동문의架橋로써 본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따스함 속에서도 동동동동스가 꼼느끼는 것은 난데없는 겨울날씨.

사연인즉 광고 구하기가 어려워 본회 직원들이 광고노리로 제작에 걸려 있다는 것.

본지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동문들의 협조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광고病」이 퇴치될 고대.

선배의 은정 「장학금」

○…후배들이 면학에 열중한



東同大同동창회동문회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벌여온

각학과 동창회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후배 재학생들에게 상학

금을 전달, 훗한 소식.

경영·화학·물리학과 과동

동국을 위해 쓰던 힘이면 국

방에도 모자람이 없을것.『원

상 부처님의 가호가 같이하길』

동동동동스 삼가 기원.

이제는 얼굴도 까맣게 그은것

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창회

에 많은 기여를 해온 동문들,

그간 아근에마다 짜장면을 자주

먹어 속(?)이 까맣게 되었는데

이제는 얼굴도 까맣게 그은것

라고.

동창회가 최근 장학금전달식을 가졌는데 이와같은 모교애가 각

동문회의 귀감이 되어 장학사

업이 확대된다면 「山高水長」의

동국은 80년, 800년이 지나더라도 그 빛이 끝낼까.

이번에 혜택을 받은 후배들,

부디 이 성원에 놓지 않는 보

답을….

속이 깊은 어느 同門

…3년여동안 본회에서 근무해오던 최종훈(85기문·본지 기자) 동문이 군입대로 인해 사임.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창회에 많은 기여를 해온 동문들, 그간 아근에마다 짜장면을 자주 먹어 속(?)이 까맣게 되었는데 이제는 얼굴도 까맣게 그은것

라고.

동국을 위해 쓰던 힘이면 국방에도 모자람이 없을것.『원상 부처님의 가호가 같이하길』

동동동동스 삼가 기원.

이제는 얼굴도 까맣게 그은것

라고.

동창회를 위해 쓰던 힘이면 국방에도 모자람이 없을것.『원상 부처님의 가호가 같이하길』

동동동동스 삼가 기원.

이제는 얼굴도 까맣게 그은것

라고.

동창회를 위해 쓰던 힘이면 국방에도 모자람이 없을것.『원상 부처님의 가호가 같이하길』

동동동동스 삼가 기원.

이제는 얼굴도 까맣게 그은것

라고.

동창회를 위해 쓰던 힘이면 국방에도 모자람이 없을것.『원상 부처님의 가호가 같이하길』

동동동동스 삼가 기원.

동창회를 위해 쓰던 힘이면 국방에도 모자람이 없을것.『원상 부처님의 가호가 같이하길』

동동동동스 삼가 기원.

동창회를 위해 쓰던 힘이면 국방에도 모자람이 없을것.『원상 부처님의 가호가 같이하길』

동동동동스 삼가 기원.

동창회를 위해 쓰던 힘이면 국방에도 모자람이 없을것.『원상 부처님의 가호가 같이하길』

동동동동스 삼가 기원.

동창회를 위해 쓰던 힘이면 국방에도 모자람이 없을것.『원상 부처님의 가호가 같이하길』

동동동동스 삼가 기원.

동창회를 위해 쓰던 힘이면 국방에도 모자람이 없을것.『원상 부처님의 가호가 같이하길』

동동동동스 삼가 기원.

동창회를 위해 쓰던 힘이면 국방에도 모자람이 없을것.『원상 부처님의 가호가 같이하길』

동동동동스 삼가 기원.

이제는 얼굴도 까맣게 그은것

라고.

이제는 얼굴도 까맣게 그은것

# B형 간염(肝炎), 걱정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백신의 개발로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읍니다.

## 예방이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치료약이 없는 B형 간염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공포의 질환이었읍니다.

일단 전염되면, 신체적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큰 간염은 백신이 개발되면서 미리 예방이 가능해졌읍니다.

B형 간염에 있어서는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예방만이 최선의 치료방법입니다.

## 누가 먼저 간염을 예방해야 하나?

- ① **신생아·취학전 아동**: 이 연령층에서는 거의 감염이 안된 상태이므로 (항체 보유율 10% 미만) 우선적으로 접종받아야 합니다.
- ② **국민학교 학생**: 집단생활의 초기 단계에 있는 이 연령층은 항체보유율이 20% 미만이므로 검사없이 접종받는 것이 경제적(經濟的)입니다.
- ③ **성인(成人)**: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성인층은 항체보유율이 평균 50% 이상이므로 국가적인 낭비(浪費)를 막고,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혈청검사후 접종받는 것이 좋습니다.

## 꼭 3회 접종을 필하십시오.

간염 백신은 6개월에 걸쳐 3회 접종을 완료하셔야 완전하게 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백신은 생산(生産)에서 접종까지 신속한 유통과정(流通過程)과 냉장보관(冷藏保管)의 철저를 기하므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덜 예민한 검사시약과 검사방법의 문제로 항체(抗体)의 시비(是非)가 있었으나, 예민한 검사법의 보편화(ELISA, RIA 법)로 말썽이 없어졌읍니다.

헤파박스-B는 국내외에서 실시한 수차례의 임상연구 결과 3회 접종으로 효과가 확실합니다.



우리의 긍지 - 우리技術, 우리原料로 만든

녹십자 헤파박스®-B

• 잘 키운 딸하나 열아들 일부립다. 8505-HBV-1



주식  
회사

녹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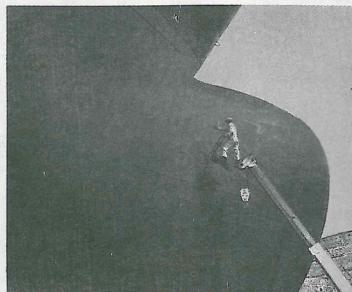
한 우물을 파는 精誠이 技術의 深度를 더 해 갑니다.

• 본사: 584-0131(代) • 판매: 서울 741-0131, 부산 83-8977, 대구 752-0447, 대전 623-0131, 광주 56-5781, 전주 3-7310, 미산 2-4991, 원주 42-2759, 청주 2-3546, 인천 73-0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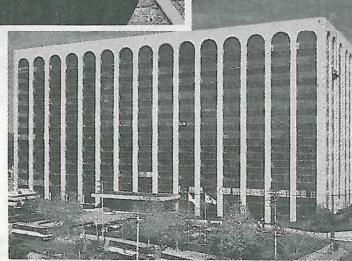
# 고려화학 10년속에 100년의 땀이 담겨 있읍니다.

첨단기술의 산실, 중앙연구소

선저방오용 도료 (SRA)



원자력발전소용 내방사선도료



코푸렉스로 도장된 현대사옥



자동차 양이온 전착도장

지난 10여년 동안 고려화학은 세계의 첨단도료 산업계의 기술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엄청난 투자와 짐중적인 노력으로 첨단기술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이제 고려화학은 그 땀과 노력의 결실로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특수도료 및 수지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품질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려페인트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가까운 고려페인트 대리점을 확인해 두십시오.

고려페인트 대리점에 오시면 도료선택, 구입에서부터 칠, 마감에 이르기까지 도료에 관한 모든 것을 언제나 상세하게 상담,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고려화학 신개발제품

- 선저방오용도료 (SRA) : 강력한 방오효과, 최대선속효과, 연료절약 15%의 선박용도료.
- 분체도료 : 국내 최초의 무공해 분말도료.
- 알미늄 전착도료 : 전기작용으로 도포하는 알미늄사시용 투명전착도료.
- 내방사선도료 : 원자력발전소용 도료.
- 코푸렉스 : 20년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불소도료.
- 선사차폐농도료 : 전자제품의 전자파 차단도료.
- 양이온전착도료 : 전기작용으로 도포하는 고성능의 자동차용도료.
- 녹면도료 : 각종 철물의 녹슨면 전처리도료.



## 고려화학